

최옥선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공감협의회 '감사' 선출

전국 107개 공공기관 감사모임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최옥선 상임감사(사진)가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의 감사로 선출됐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 상임감사는 지난 21일 BK충주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도 공공기관 최고감사인 청렴결의 워크숍'에서 전국 107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감사 모임인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이하 공감협의회)의 감사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최 상임감사는 앞으로 1년간 공감협의회의 감사로 활동하게 된다. 공감협의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107개 공공기관의 감사, 상임 및 비상임감사·

감사위원 모임으로 공공기관 감사의 이해와 인식의 폭 확충 및 정보교류,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의 발전 및 내부감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최옥선 상임감사는 "공감협의회는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의 발전과 내부감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라며 "협의체 감사로 활동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상임감사는 지난해 전북대병원 최초의 여성 감사로 선임된 후 전북대병원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무용학과 전국무용경연대회 '전체 대상' 홍유나 외 10명 'Fragments of time' 으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가 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전체 대상을 차지하는 등 단체와 개인 부문에서 모두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지난 24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무용경연대회에서 홍유나(4년·지도교수 이화석) 학생 외 10명이 'Fragments of time'이라는 작품으로 전국에서 참여한 108팀 가운데 전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등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개인 부문에서는 'That's life'을 선보인 임세희(무용학과 2년)학생이 은상을, 'Indistinct memory'을 춤춘 최태현(무용학과 2년)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두 학생들은 이달 초 (사)월간 춤과 사람들이 개최한 무용경연대회에서도 개인 부문 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화석 지도교수는 "단체 팀에게 전체 대상이 주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절도 있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우리 학생들이 국내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경찰청, 맞춤형 통합지원단 범피 피해자 지원위원회 열어

전북경찰청은 26일 정승용 2부장과 맞춤형 통합지원단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단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3년 4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지원단을 발족, 현재 417개 단체가 참여해 4대 사회악 척결과 범피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지원단과 협약을 맺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전북은행, 전라북도 약사회 등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 범피 피해자 가정에 1,700만원 상당을 지원한데 이어 2014년에는 1,740만원, 지난해도 2,3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정승용 2부장은 "4대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 맞춤형 통합지원단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 내 범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함미화 피해자보호분과위원장(1366전북센터장)은 "그동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불안경찰서 방문·유공자 표창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불안경찰서를 방문하여 치안현장에서 맡은바 업무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노인상대 악성피의자 검거 유공자 지능범죄수사팀 장원중 경위, 복지업무추진 내부민족도 향상 기여 유공자 경무계 김용기 경위, 4대 사회악 근절 언론홍보 및 주민 체감치안안전도 향상 기여 유공자 서립지구대 김정수 경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표창 수상자들과 함께 간담회 뒤,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신뢰받고 공감 받는 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육수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내 북카페 '착한가게' 가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내에 있는 북카페가 26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내에 있는 북카페는 2015년 직원의 자율모금을 통한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를 계기로 문을 열게 됐고 직원이 자율적으로 이용 후 비용을 지불하는 무인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면서 '착한가게'에 가입한 것은 도공 전북본부 북카페가 최초다. 앞으로 북카페 수익금의 50%는 도공 직원들이 나눔을 위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해 조성하는 해피펀드로 편입, 전북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문명국 전북본부장은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눔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병영 기자

무주경찰서, 112신고 분석 통한 아동보호 활동 적극 전개

무주경찰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112 신고 사건 중 자녀가 있는 가정의 폭력 신고, 보호자 없이 혼자 놀고 있다는 신고 등 아동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신고에 대해서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112 신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 후 면접,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가정방문하여 재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 입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활동이 있다. 한도연 서장은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회복 지원 등 보호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 탈북민 안보강사 초빙 안보교육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를 초청해 경찰과 의경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실상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열악한 북한군인의 실상을 토대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정립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안보전문강사는 "최근 북한 도발로 긴장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안보의식과 통일 의식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연 완산경찰서장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보사진전 및 안보 강연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익산 농가주부모임·농협,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나눔 행사

익산시 농가주부모임과 농협 익산시지부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익산 관내 농협 임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익산시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삼기연 연합회장 자택에서 실시된 본 행사는 농가주부모임 익산시연합회와 농협 익산시지부가 주관했으며 2012년부터 실시하며 올해로 5회차를 맞게 되었다. 특히 매년 농가주부모임 익산시연합회는 지역 우수한 딸기를 재료로 방부제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딸기잼을 만들어 관내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이동근 부안군 하서면장, 불안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부안군 하서면 이동근 면장(사진)이 강현신 부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동근 하서면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치안활동에 대해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불안경찰서 전 직원을 대표해 강현신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 면장은 평소 경찰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왔으며 특히 하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을 지원해 방범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범피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동근 하서면장은 "이 상을 받게 해준 하서면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운행을 통해 읍유전자과 교통사망사고가 없는 하서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육수 기자



진안군 백운면, 부녀회장 대상 쓰레기 3NO운동 실천 교육

진안군 백운면은 지난 25일 쓰레기 3NO운동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부녀회장 30여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3NO운동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재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마을별 로 자원순환의 날을 지정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을 담당할 조봉진 청정지원 담당은 "마을 부녀회장님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직 일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 투기, 매립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11월 29일 (토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종양지사 010-93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6	김제지사 547-886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지지사 010-8845-9835	필북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익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69-98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알림

▲도민을 위한 무료특강 및 제20회 스피치인 축제 = 일 시 :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전주생명과학고, 주 최 : 스피치과정 원우회 공동, 주 관 : 한국 스피치리더쉽협회, 강 사 : 김진배 한국유머센터장, 김양욱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문의전화 : 063-231-6669, 010-7304-5654

▲위도 무료검진 = 일시·장소 : 28일(목) 치도리 경로당, 29일(금) 진리 경로당 시행 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063-251-9988) 부설 복지의원

결론

▲안태현(대전 한온시스템 연구원, 안병희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장남) 군·이서현(전주 화산초등학교 교사, 이경만씨 장녀)양 = 일 시 : 30일(토) 오후 1시, 장 소 : 전주 엔터테인먼트센터 1층 베일리홀

▲이대희(전주시 완산구청근무, 이상순 씨 차남)·이교은(부안수협근무, 이동영 씨 장녀)양 = 일 시 : 30일(토) 오전 11시, 장 소 : 전주알펜시아웨딩홀 알펜시아홀